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 1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 2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가깝도다
- 3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 1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 2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 3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네
- 후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 담당

10/20(화)	10/21(수)	10/22(목)	10/23(금)	10/24(토)	10/26(월)
박경원2 안수집사	이종덕2 안수집사	이인호1 안수집사	박형중 안수집사	이선 안수집사	송창범 안수집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엡4:3, 롬12:11)

2026년 10월 23일(금)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 신 기 목 사	
예배를 여는 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갈 이
찬 송	 438장	다	갈 이
기 도		박형중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열왕기상 22장 5~8,13,14절	인	도 자
찬 양	 주만 바라볼지라	새	벽 찬 양 대
설 교	 『듣고 싶은 말, 들어야 할 말씀』	이	신 기 목 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갈 이
찬 송	 204장	다	갈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22:5~8,13,14>

5)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와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 보소서 6)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사백 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7)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와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8)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13)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 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14)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6년 10월 23일(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합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백 명의 선지자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미가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했던 것처럼, 저희도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때로 마음을 찌르고 불편하게 할지라도 겸손히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이기심으로 훼손된 주님의 창조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세계가 한마음으로 이 땅을 돌보고 가꾸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온전히 물려주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의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 돕고 섬기며 화합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더하셔서 하루속히 평안한 일상을 되찾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문안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상학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들과 당회원, 모든 제직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과 훈련을 마치고 이번 주일에 임직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로 한 첫 마음을 끝까지 지키며, 맡겨진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일밤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문안의 모든 성도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